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빌립보서 2:19-30

김성수 목사님

세월이 많이 흘렀다. 1999년에 참사랑교회, 당시 오금중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 해서,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임했다. 10년 동안 내 청춘을 여기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바쳤다. 나이 어린 제가 와서 많이 배웠다. 여기에서 배운 모든 것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다 기억난다.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 옥상에서 잤는데, 최목사님께서 양말과 수건을 챙겨서 방에 가져다주셨다. 미션 홈에 살 때도 청년들과 같이 산다고 많은 분들이 반찬도 해 주시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불도 베개도 만들어주셨다. 아내가 몸이 약하다고 반찬도 밥도 와서 해 주셨다. 돌이켜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 믿는다. 요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내가 자주 한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지 모르니까, 만날 수 있을 때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구 성전 시절에 나도 있었고,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신옥희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헌신하신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 증인 중의 한명이다. 전도사 시절에 나도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던 것을 기억한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입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는 고백이 많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 입에서 그 감사가 늘 고백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익어가고 계신 것이고, 그게 사라지고 있다면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축복한다.

1. 헌신의 모델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온다. 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고민을 했다. 많이 하는 뽀빠, 브리스가, 루디아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다가,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헌신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문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헌신의 모델로 제시한다.

(1)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하게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교회를 생각할 때, ‘나 대신 가서 빌립보교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가슴 그대로 가서 도와줄 제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할 때 디모데가 생각났다. 디모데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바울도 알고 빌립보교회도 알고 있었다. 많은 연단을 통과한 검증된 일꾼이었다는 말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인 것처럼 섬겨서, 바울이 세계복음화하는 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한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정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목회자에게도 인정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나도 힘써 자식처럼 최목사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그래도 내 중심은 아버지를 섬기듯이 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봉사가 소중했었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아들같은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분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 이분을 참 축복해 주고 싶고, 늘 뭔가를 더 주고 싶다. 이런 관계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시대는 디모데같은 제자, 바울같은 스승이 참 그리운 시대다. 우리가 그런 제자와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교회에 보내서 자기 사정을 알리고 돕게 했다.

(2)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빌립보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필요한 것을 모아서 주었을 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감옥의 바울을 찾아와서 옥바라지를 다 하며 중심껏 도왔다. 그렇게 하고 가다가 병에 걸려 버렸다. 바울이 생각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30절에 나온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도 좋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섬겼다. 이것이 전도자 바울이 생각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그렇게 성심껏 도왔는데 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상심한 바울이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또 헌신하다가 병이 날 것 같아서, 디모데 편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돕도록 보냄받은, 쓰임받은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3)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위대한 영웅을 기억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위대한 영웅

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뒤편에는 수많은 이름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것을 디모데로 삼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참사랑교회도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우리가 빚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여러분을 낳았다.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어머니는 엄청난 피를 쏟아내면서, 죽을 수도 있는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낳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자랐으며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정상적인 신자다.

2. 헌신의 조건

(1)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에서 많은 불평을 쏟아낸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감격을 해서 사랑을 주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몰릴 듯 오는 사람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늘 그 생각을 한다.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을,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진짜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 은혜는 앞의 강단에 선 뛰어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경만 펼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가난함을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가난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신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모든 부분의 가난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세울 게 없는 가난함.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집에 차가 몇 대 썩 있어도, 그 심령 속에, ‘나는 극빈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오늘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광야 속에서, 물 한 모금 안 나오는 곳에서도,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당장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말라죽고 얼어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내 재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굶주린 자요, 배고픈 자요, 가난한 자요, 거지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늘 철저히 나를 비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극빈자로 나아가라. 가졌다고 하는 것, 가졌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것인가. 공부 좀 많이 한 것이 여러분의 것인가. 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인가. 우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안다.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처음 왔던 빈 손의 자세,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빈 손의 자세, 그대로 극빈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가?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 했던 것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갈급해진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복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은혜를 말한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말한다. 그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셔서, 그 복이 내 옆으로 흘러가서, 죽어있는 생명에게로 들어가고, 평강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면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굳이 어마어마한 돈도 건강도 지식도 성공도 주신다면, 그때,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흘러보내주라고,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상처입은 자를 도우라고, 평안을 잃은 자를 도우라고,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통로가 되라는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 집 마련한다고 애쓰시지만, 여러분 집이 아니지 않나. 여러분 집이면 천국 갈 때 가져가야지. 별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헌신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자다. 어디에 내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그 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은혜가 강통이다 하는 사람은 헌신하면 안 된다. 시험에 든다.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은 헌신하면 안 된다. 헌신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은데 영생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이, “다 했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 가지고, 돈 가지고 영생 얻고 이름내고 칭찬받고 해보려고 했으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한다.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

(3) 나는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이 언제 가능할까? 나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과 평강,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 헌신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 나를 준다는 것은 사랑해야만 가능하다. 헌신은 내 몸을 바친다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우의 시체를 넣고 넣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이 잘 있거라 우리는 진진한다.”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자기를 위해 헌신한 친구의 시체가 누워 있다. 그 시체를 뛰어넘어서 가는 것이다. 그게 헌신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옆의 전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을 때, 그 전우를 끌어안고 부축해서 같이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 그래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몸소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고 만났을 때 부둥켜안고 축복하고 입맞춤으로 교제했다. 행4:32-37에 보니까, 그들은 교회에 올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초대교회에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부동산 대박이 난 것인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덜 가난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내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왜 가난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가? 성경의 기록교가 자본주의 사상에 먹혀 버렸다. 자본주의라는 가난한 문화를 성경 속에 있는 기록교가 못 이긴 것이다. 그게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다. 이미 무너진 교회들이다. 한국교회도 이대로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 저의에 뭐가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교회가 가난에 굶주릴 때 안디옥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다. 큰 필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다. 고린도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지만 헌금하지 않았다.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너희가 넉넉함을 나누어 어려운 형제 교회를 도와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마케도냐교회는 힘껏 했고, 힘에 넘치게 더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기록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헌신인가.

3. 세 가지 찾을 것

여러분에게 세 가지 찾을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아라. 두 번째로,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아라.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아라.

(1)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찾은 것 자체가 응답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을 찾은 것 자체가 응답이다. 이것을 못 찾았다면 그정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 밥만 먹다가 죄 제조기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뭘까’를 찾은 사람은 참으로 가치있게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 하나하나에도, 밥 먹을 때에도, 움직일 때에도, 만날 때에도 의미가 있다. 교회에도 의미가 있고 아침에 새로 눈을 뜨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절대헌신을 못 찾은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 인생의 미션을 못 찾은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헌신하는가?’ 큰 헌신은 예수님이 하셨다. 큰 사랑은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을 못 한다. 나는 나를 안다. 내 주체에 그런 사랑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찾으시기를 축원한다. 그것을 못 찾으면 인생이 갈등에 빠진다. ‘왜 살아야 하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이런 가족들과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우리 기관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어해야 하지?’ 계속 갈등이 온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몸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을 찾게 된다. 짧게 살면서 하든 길게 살면서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헌신할 것을 찾아서 헌신하고 갔느냐 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뭘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헌신을 하다가 왔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종은 매를 때려서 쫓아내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인가. 마케도냐처럼 힘에 넘치게 하는 제자라면 더 좋겠다. 나는 10년 여기에 있는 동안 그런 분을 많이 보았다. 목사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모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있다. 장로님들이 그런

분임을 알고 있다. 권사에서 장로님이 된 할머니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다. 숨겨진 제자. 교회 일찍 와서 교회 앞마당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쓸던 분은 지금도 쓸고 계신가. 의자 쓸고 닦고 하던 분은 그대로 하고 계신가. 조용히 신학생 챙겨주던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작은 헌신은 무엇인가. 못 찾았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찾은 분이라면 복된 분이다. 찾게 되기를 축원한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롬16장 앞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로마서 16장 앞부분의 제자들, 헌신자들이 다 여자들이다. 아굴라는 패키지로 껴 있는 것이고 (웃음) 디모데같은 남자, 에바브로디도같은 남자도 있었다. 전도자가 기억할 수 있는 제자로 남은 사람도 있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수고한 자, 큰 도움을 준 자,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모저모로 작은 헌신을 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중에 또 더 있을 것이다.

(2)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아라. 그것을 찾았다는 자체가 성령인도를 받은 것이다. 1여전도회에서 해야 할 헌신, 2여전도회에서 해야 할 헌신을 찾아야 한다. 내가 10년 간 청년들을 데리고 경찰병원에 진도하러 갔는데, 그때 밥해준 분이 계시고, 밥값을 챙겨준 분이 계시고, 램프를 도와주었던 분이 계시고, 매주 밥값을 준 여전도회가 있었다. 그렇게 찾아야 한다. 말로만 램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그게 믿음이다. 작은 실천으로 간 것이 믿음이다. 작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면, 그 작은 것이 점점 쌓여서 큰 것이 된다. 나는 별로 돈이 없어서 우리교회 건축헌금을 많이 못 한다. 그래서 매주 만 원을 한다. 그렇게 꼬박꼬박 한다. 한 주간을 아껴 쓰면서 한다. 매주 감사헌금을 한다. 매주 선교헌금을 한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매주 주일, 한꺼번에 못 하나까. 작은 헌신, 작은 실천. 그게 나중에 쌓이면 큰 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기관의 작은 헌신이 만들어져서 교회의 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작은 것을 찾은 기관은 성령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3)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작은 헌신을 찾아라. 그것을 찾은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맨날 그러다가 끝나버린다. 지금 하라. 그게 모이는 것이다.

결론을 맺겠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을 다 살아도 그리스도처럼 되지는 못한다. 그 근처를 가는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반사될 뿐이다. 나에게서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발광체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을 나는 반사하다 갈 뿐이다.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도록 쓰임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영체를 입는다. 영화의 단계를 입는다. 우리는 그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영화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탐내던 차도 집도 소유가 없다. 여러분이 왜 그것을 부러워하는가? 더 좋은 것을 못 봤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지어져가고 있는 중에 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갈 뿐이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 젊다고 해서 ‘나는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빨리 데려갈 수도 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 기도해 보라. 하나님께 여쭙 보라. ‘하나님, 저는 한 번 이 땅을 살다가 가는데,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갈까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까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찾아보라. 건물? 돈? 없지 않냐? 다 사라진다. 복음이 영원한 것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운동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열두 제자를 남기셨다. 예수님도 한 사람 실재하셨으니까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마가다랴방에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다. 바울이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바울서신을 남겼다. 복음을 남겼다. 그리고 뭘 남겼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빌립보서 2장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남기고 갔다. 온전히 헌신된 제자를 남기고 가시기를 축원한다. 이 땅을 떠날 때, ‘야, 우리 집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구나. 우리 교회를 맡길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불쌍한 것이다. 쓸쓸한 것이다. 여러분, 제자를 남겨라. 내 후를 그대로 이는 사람, 내 영이 그대로 통하는 사람, 내 사명과 통하는 사람, 나와 복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통하는 사람을 남기고 가라. 결국 제자운동만이 이 땅에 남는 것이다. 언제까지인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다. 앞서라에게 인사하자. “작은 헌신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을 주의 백성이 들었나йка. 들었다면,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이 지식 되게 말고 생명되어서 살아 움직이면서 성취되게 하소서. 말씀이 저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한 목숨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 설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참사랑교회에 많은 은혜를, 많은 복을,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